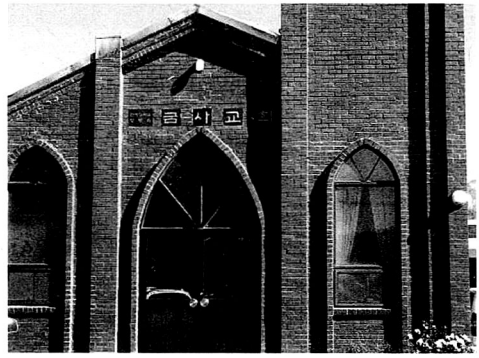
금모래(金砂)교회 이야기

한 양 호 (목사, 무주 금사교회)

1. 지금 이 자리



금사교회 모습

오늘 충남 금산 장(場)에 다녀왔습니다. 겨울동안 '사랑의 차(茶) 나눔'을 위해 대추와 생강을 사러 다녀왔습니다. 벌써 이곳에서 '사랑의 차 나눔' 행사를 4년째 진행 중입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 힘써 땅을 일구는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섬길까?" 하는 고민 끝에... 교회 식구들은 농사일을 쉬는 겨울에 "우리가 차를 만들어 대접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대추와 생강, 계피를 끓여 설탕을 넣어 달달한 대추생강차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금사다방이 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찻값은 사절했습니다. 농촌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충분히 이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대 히트였습니다.

늘 부대끼며 살아왔던 이웃들을 사랑의 차를 통하여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후하며 마시며 허허하며 웃어대는 이웃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대접하는 우리 교회식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싹트고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으니 대박난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식구들은 12월이 되면 사랑의 차를 만들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시골교회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정도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 기운이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요."

"넉넉한 돈과 사람으로 꼭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가 갖지 못한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정직한 땅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우리가 도시에게 선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시다.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옆 자그마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감자와 옥수수, 여름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하지(夏至)가 되면 20상자 정도의 하지감자를 수확합니다. 가을이면 10가마니 정도의 고구마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댓가없이 나누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식구들은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선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촌목회의 큰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 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회가 되어 온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라 고백합니다.

처음 몇 년은 새로운 곳에서 젊은 혈기에 이것저것 도전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공부방을 시작하고,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성서를 함께 읽고,

젊은 여신도들과 함께 제자화 교육과 전도를 하고, 교회 식당 건축을 하고... 시골 살림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사업(프로그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했고, 그 일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의 시골 목회는 그저 일(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행했을 뿐이었지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과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주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이곳 생활이 광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일이 아닌 삶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솔직히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인 모든 면에서 시골에서의 삶은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과 심정을 "광야 길에서"라는 글로 표현해 봅니다.

지난 여름 여름성경학교(위), 공부방(아래)

광야 길에서

적막한 곳
뒤를 돌아보는 곳
극과 극을 넘나드는 곳
지금 그곳에 나는 걷고 있다

"외롭습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습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난 죽지 않았다
왜일까?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낮엔 구름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기 때문이다

광야, 그곳은...
나를 보게 하고
그분을 보게 하는 곳이다.

2. 지금 이 순간

지금 아내는 사랑의 차를 다 끓여 놓았습니다. 내일 여신도들과 함께 안성면에 나아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월, 화, 목요일은 공부방이 운영됩니다. 봄이 되면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여름이면 고구마를 심겠

교인들과 봄소풍을 가다

가족들과 함께

지요. 가을이면 가을걷이를 하고 당연히 이곳저곳 필요한 곳과 분들에게 나누겠지요. 겨울이면 성서를 읽고 전도하겠지요.

이제는 일이(프로그램) 아닌 삶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목회 초년병이며 시골살이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얻는 깊은 영성을 이곳에서 얻기 시작 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農